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울릉도 ·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 사진은 독도에서의 기념촬영 모습.

독도 간 탈북 청년불자들 '한반도 평화' 발원

동국대, 8월 23~25일 울릉도·독도 탐방

울릉도 · 독도=신중일 기자

"거룩하신 부처님! 하루속히 분단의 상처로 갈라진 남과 북이 서로 원망과 분노를 거두고 분별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들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간절한 서원이 한반도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에 울려 퍼졌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울릉도·독도 탐방'을 개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지정학 학교법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동국대 재학생을 포함한 16개 대학 북한 출신 학생 32명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탐방은 포항과 울릉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조현덕 울릉크루즈(주)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김영기 울릉크루즈투어 대표가 직접 동행해 모든 일정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접 마중 나온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호 사찰인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탈북 대학생들의 첫 울릉도·독도 나들이를 응원했다.

평화 바라는 탈북 대학생 서원들

8월 24일 새벽 울릉도 사동항으로 입도한 탈북 대학생들은 거북바위, 예림원, 나리분지 등 명소들을 탐방하며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는 울릉도의 형성과 생태, 안타까운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절멸종으로 분류되는 독도바다사자(일명 강치)에 대한 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에 학생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수산업자 나카이 요시부로는 1904년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바다사자 독점 어업권 허가를 받고 매년 5000여 마리를 남획했다. 남획된 독도바다사자는 식용 및 기름, 가죽 등으로 활용됐다. 1976년까지는 간간이 독도 인근에서 확인됐으나 이후에는 발견됐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도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 전시관에 독도에서 포획한 독도바다사자 박제본을 전시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물로 활용 중"이라고 일본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참가 대학생은 "북한에 있을 때에는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으로만 인식했는데, 이번 탐방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식생과 문화를 알게 됐다. 독도바다사자 역사는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울릉도 추산 성불사를 참배한 대학생들은 호국약사여래불상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발원문을 봉독했다.

대학생들은 "한없이 넓고 청정한 바다 위에 우뚝 선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며 여기 모인 불제자들은 남북이 하나로 어울려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옵건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혜와 자비, 정진 속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했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는 '독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독도 탐방. 앞서 국문학자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독도의 명칭 유래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독도를 한자로 '홀로 있는 섬(獨島)'이라고 쓰지만 한국 고어(古語)에서는 '돌'을 '독'으로 발음했다. 그래서 '돌무더기 섬'이라는 뜻의 '돌섬'에서 현재의 섬 명칭이 유래됐다"면서 "이후 일본인들이 독도를 음차해 '다케시마(竹島)'라고 했다. '다케'가 대나무(竹)를 말하는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명칭의 유래에서부터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울릉도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40여 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독도는 기상이 좋고 바다가 매우 잔잔해야 접안이 가능하다. 실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40여 일. '독도 입도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행히 동국대 탐방단이 독도를 찾은 8월 24일은 입도하기에 최적의 기상이었다. 탐방단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1시간 40분을 달려 독도에 무사히 입도했다. 탐방단들은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독도와의 첫 만남을 기록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내년 건학 120주년과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북한 출신 학생들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번 탐방을 기획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여러 시절인연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동국대 재학생뿐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들도 참가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채윤서(동국대 대학원 재무회계 전공) 씨는 "탈북민으로서 갈 수 없는 곳이 북한이고, 북한에 있을 때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울릉도와 독도였다"면서 "불교와의 인연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와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광(건국대 경영학과) 씨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도에 발을 딛고 선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럽다.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신 동국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불교가 지혜로운 종교인 것은 포용성에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한다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며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유산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통한 교류도 남북평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영(명지전문대 뷰티매니지먼트학과) 씨도 "북한에서는 여행도 진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대한민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다"고 밝혔다.

"아직도 북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힌 그는 "오늘 같은 순간을 친구와 친척들도 경험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화 원력, 전법으로 확장

동국대는 이 같은 평화 원력을 바탕으로 오는 9월 23일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의 불교동아리를 창립한다. 창립식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동화사 전 주지 능종 스님,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동국대의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현재까지 미비한 '탈북민 포교'에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돈관 스님은 "단과대학 내 불교동아리가 있지만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쉽게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이 컸다"면서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는 이들이 불교를 통해 대학과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은 "이번에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 탐방을 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탐방이 넓게 보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채윤서 씨가 학생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다.

탈북 대학생 16개교 32명 참가
광복 80주년 맞아 평화 기원해
'독도 수호' 남북 공통분모 확인
"원망 거두고 자비로 하나 되길"
9월 23일 탈북 대학생 동아리 창립
탈북민 계층 포교 '한 획' 기대



울릉도 · 독도해양연구기지를 견학하는 참가자들.



참가 대학생들이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